

죽음의 인류학적 이해

김 경 학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요약) 이 글은 일부 인류학자들이 죽음의 현상과 의례를 이해하는 시각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헤르쯔, 반 게넵, 터너는 죽음을 삶의 세계로부터 죽은 자의 세계로의 전이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헤르쯔는 죽는다는 것이 영적인 한 상태에서 영적인 다른 상태로 느리게 전이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죽음이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많은 사회의 죽음의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례의례 가운데 특히 전이적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들은 성적욕망과 생산성에 관련된다. 한국의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다시래기'와 '산다위'와 같은 장례에 관련된 놀이들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성을 노래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은 특히 장례의례의 리미날 기간에 강조되는 상징들이 전이, 역전, 애매모호한 상태, 고립, 성적욕망 등과 관련됨에 주목하고 있다.

[Key words: 리미날리티, 의례, 전이, 죽음]

본고는 2008년 10월 28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천주의성요한수도회 한국진출 5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고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김경학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khkim@chonnam.ac.kr이다.

초기 인류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이라는 현상은 인간에게 현세가 순간적임을 가장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면서 인간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비일상적인 ‘성스러운’(종교적인) 사회적 사건이다. 죽음의례에 관련된 세계 도처의 관습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인간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켜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통적이다. 인간의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관습들은 인간의 삶의 본질을 정교하게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적 관심이 되어 왔다. 인간의 문화와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죽음이 이해되어지고 처리되는 다양한 방식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고고학자들은 시신처리와 부장품의 매장 방식이 고대인의 삶의 양식의 일부를 밝혀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세기 흥미하였던 진화론적 시각에서 보면 죽음은 종교의 기원이나 문화의 진보적 발달과 같은 거대한 주제에 관련하여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예컨대 진화론자였던 타일러(Sir Edward Burnett Tylor: 1832 -1917)는 종교의 기원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반응에서 찾고 있다. 그는 수면과 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비물질적 존재에 대한 인간들의 집단적 반응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고 있다. 꿈을 통해 인간의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들의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타일러는 죽음을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진화론자인 프레이저(Sir James George Frazer: 1854-1941)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시신에 대한 공포,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의 보편성, 이에 관련된 특이한 의례들을 상세하게 수집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사회적이고 지적 발달(진화)의 증거로서 죽음에 대한 낯 설은 믿음과 관행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초기 이들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죽음 현상 자체였다기보다는 종교의 기원을 규명하는 작업의 한 가지에 불과하였다.

죽음의 인류학적 이해

죽음의 현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종교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이었다. 뒤르켐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자들은 앞서 살펴본 진화론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종교는 개인의 감정이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의 도덕적 응집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기능주의자의 입장에서 죽음은 집단으로부터 해체된 개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죽음은 사회통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예컨대 사회구조 기능주의자 래드클리프-브라운(Radcliffe-Brown, 1964)은 장례식에서의 의례적으로 통곡하는 행위를 슬픔이라는 자발적인 정서의 발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특정 사회가 규정한 방식대로 의례적으로 우는 행위는 사회가 규정한 방식의 적극적인 정서적 표현방식을 통해 죽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결속의 느슨함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부분의 문화에서 죽음의례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회가 규정한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다.

죽음을 이해하는 가장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 인류학자는 아마도 뒤르켐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헤르쯔(R. Hertz)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그가 비록 죽음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이중장 매장 의례에만 집중적으로 연구했지만 죽음에 대한 그의 분석방식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강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헤르쯔(1960)는 보르네오 섬의 죽음의례를 ‘사망,’ ‘시신의 육탈,’ 그리고 ‘유품의 매장’이라는 세 단계로 분석하고, 이 가운데 사망에서 유품의 매장 사이에 걸쳐 있는 ‘중간단계의 기간’(intermediary period)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죽음은 삶의 세계에서 죽은 자의 세계로의 전이 과정

Hertz(1960), Van Gennep(1960), Turner(1974), Douglas(1970) 등이 죽음의례를 포함한 의례 일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과도기, 전이기, 리미날 기간으로 다양하게 인식되는 중간 단계의 ‘위험성’과 그 위험성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망자의 영혼

이 사령(ghost)의 상태에서 조상의 지위를 얻기 전까지의 기간을 ‘리미날 기간’ 또는 ‘전이기’ 등으로 간주하고 이 기간에는 극도의 부정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사령은 아직 ‘조상’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산 자들의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지위’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경계적 지위 때문에 사령은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산 자들은 각종 의례 및 금기들을 지키고, ‘리미날 상태’에 존재하는 위험들을 의례화 또는 극화시키고자 한다.

먼저 죽음에 관련한 반 개념의 관점을 알아보자. 그는 1909년에 출간한 ‘통과의례’(rite of passage)에서 장례를 넓은 의미의 의례이자 중요한 통과의례의 분석대상으로 간주했다. 반 개념의 죽음의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례의 구조는 기존 지위에서 ‘분리’(separation), ‘리미날 기간’(liminal period), 새로운 지위로 ‘재통합’(reintegration)이라는 삼분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은 일생동안 다양한 지위변화를 경험한다. 매번 지위 변화마다 기존의 자아는 사라지고 의례를 통해 새로운 지위로 태어난다. 사실 통과의례 가운데서도 출생과 죽음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때문에 생산의 맥락인 추수의례에 해골이 동원되거나 죽음의례에 재생(rebirth)의 상징물로 가득 찬 의례적 맥락이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된다. 죽음과 관련지어 반 개념의 삼분 구조 가운데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단계인 ‘리미날 기간’이다. 이 기간은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이 상징적으로 ‘사회 밖에’(outside society)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이 지켜야 할 금기도 매우 많다. 리미날 기간 동안은 공동체의 정상적인 규칙이 유예된다. 죽음이 발생하면 해당 공동체 또는 상주들은 사회 밖에 놓인 것으로 상징되며 이들은 각종 금기들을 지켜야 한다. 대체로 리미날 기간이 종료된 후 상주 또는 공동체에 정상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대연회를 통해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반 개념 역시 죽음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미날 기간인 전이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반 개념이 세계 도처에서 수집한 죽음 관련 의례에서도 과도기에 대한 주제들이 장례의례의 상징주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반 개념의 삼분 구조 가운데 리미날 기간에 크게 주목한 학자의

죽음의 인류학적 이해

한 명인 터너(Turner, V.)의 관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터너는 삼분 구조 가운데 과도기에 해당하는 리미날 기간의 자율성에 주목하고, 이 기간은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 사이에 끼여 있는’(betwixt and between normal social roles) 기간(Turner, 1967, pp. 93-111)으로 간주한다. 이 기간은 일상적 맥락과 구별되는 의례적 기간의 정점으로서 다양한 상징을 통해 리미날 기간의 특징들이 드러난다. 특히 리미날 기간의 자율성은 죽음의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장례의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례들 가운데 과도기에 해당하는 리미날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터너의 리미날 기간은 ‘애매모호한 상태’, 특정 범주에도 속하지 못한 것, 정상적인 사회생활로부터 ‘고립되는 기간’(a period of seclusion) 등으로 표현되며, 대체로 부정 타있는 것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망자는 산자의 세계에도 그리고 조상의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으며, 죽음을 맞이한 상주들과 공동체는 부정 타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상생활로부터 고립된다.

마지막으로 헤르쯔(1960)의 리미날 기간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자. 반 개념은 죽음의례를 포함한 다른 통과의례 전반에 관심이 있었지만 헤르쯔는 죽음의례에만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다. 헤르쯔는 죽음을 “인간 생의 즉각적인 파멸로 보지 않고, 죽은 자가 조상으로 되어 가는 의식적(ceremonial)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사회적 사건(social event)”으로 간주했다. 헤르쯔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그곳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살아있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닌 상태인 과도기적 기간을 지난다고 믿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헤르쯔는 이 기간을 ‘중간단계의 기간’(intermediary period)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간단계의 기간의 종료에는 언제나 대연회(大宴會)가 언제나 따르고, 대연회 기간 동안 시신은 재생되어 의례적인 과정을 거쳐 새로운 안식처로 옮겨져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 중간단계 기간의 설정은 상주들이 대연회에 필요한 재원을 축적할 수 있을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개 재원 축적 기간은 시신에서 살이 부패하여 뼈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 요하는 기간보다

더 긴 것이 일반적이다. 영혼과 신체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 없는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영혼은 시신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방황을 시작한다. 중간단계 기간 중에 시신의 살은 형체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일으키며, 비물질적 존재인 죽은 자의 영혼(사령) 역시 이 기간 동안 안식처를 잃고 헤매게 되어, 그 때부터 사령은 죽음의례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는 시신으로 돌아온 후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것을 안 영혼은 더 이상 부패되는 시신에 안주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한 믿음이다. 따라서 중간단계 기간 동안의 사령은 있을 곳을 상실한 비참하면서도 사악한 상태라고 이해된다. 여기에서 사령의 운명과 시신의 운명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시신이 부패되어 뼈만 남는데 시간이 걸리듯 사령도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신령(spirit)으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사령은 더 이상 일상 사회로 복귀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주거지 주변을 맴도는 불쌍한 존재가 된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사령이 화가 나면 산자의 세계에 질병을 일으켜 화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산자들은 사령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교한 금기를 엄수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원이 사망한 날부터 상주들은 엄격한 금기들을 지켜야 하며, 금기 엄수의 정도는 친족계보 상으로 죽은 자와의 거리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많은 문화권에서 상주들은 사망 의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맨발로 다녀야 하며, 모든 장신구들의 착용금지 및 빗질과 면도조차도 금지되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 또한 장례 의례가 끝나는 날까지 기름 섞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흰색이나 검정색 등의 단순색깔의 복식착용을 요구받는다 (김경학, 1995).

이 밖에도 시신의 매장 직후에 지켜야 할 금기도 있는데, 이는 사령이 아직 조상신으로 승격되지 않고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다. 이러한 금기에는 시신을 매장하든 화장하든지 시신 처리 후 상주가 쇠붙이, 불 등 축귀에 효력이 있다는 물건을 지니고서 뒤돌아다보지 않고 곧장 귀가해야 할 것 등이 해당한다. 쇠붙이 등은 축귀(逐鬼)의 효력이 있음을 말하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죽음의 인류학적 이해

는 것은 사령에게 미련을 보이게 되면 아직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사령이 산자의 세계로 돌아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믿음에서이다. 문화에 따라서는 사령이 조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도가 위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기시되고, 죽은 자는 단지 사령을 뜻하는 단어로만 불려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쇠불이나 불은 축귀의 상징이 되어 왔다. 그래서 상여가 매장지로 나아갈 때 상여행렬의 가장 앞에 긴 칼이나 창을 든 ‘방상씨(方相氏)’ 허수아비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잡귀를 몰아내기 위한 구실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례 행렬에 죽은 이의 영을 실은 ‘영여(靈輿)’와 주검을 실은 ‘상여(喪輿)’가 함께 매장지로 갔다가, 주검의 매장 후 죽은 이의 혼을 집으로 모시고 오는 ‘반혼(反魂)’에서 대개 뒤돌아보는 것은 금기되어 있다. 사령이 주검에 미련을 두게 되면 정상적으로 반혼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임재해, 1990). 이 모든 금기들은 죽음으로 발생한 전이적 상태에서의 사령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의 사령은 일정 기간 리미날 시기를 거쳐 조상의 세계로 통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사령은 쉽게 조상의 지위로 변화되지 못하고 영원히 과도기적 상태 즉 리미날 상태에 처해질 운명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령들은 극도로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소위 객사로 간주되는 죽음을 무속적 의례를 통해 처리하였다.¹⁾ 예컨대 무속(巫俗)에서는 혼인 전이나 억울하게 사망한 사령들은 과도기적 기간 후에도 조상의 지위로 승격되지 못한다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사령들은 인간에게 ‘탈’을 일으키기 쉬운 존재인 ‘객귀(客鬼)’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리미날 상

1) 물론 요즘은 이러한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교통사고나 자살의 경우도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정상적인 죽음의례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객사의 경우 통상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리나 문밖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전통적이었지만, 요즘은 집안과 집밖이라는 의례적 장소의 이분화는 의미가 없다. 예컨대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 병원 장례식장에서 죽음이 처리된단지 또는 집에서 사망했지만 전문장례식장으로 옮겨 장례의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태에 있는 사령을 조상신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령제(死靈祭)가 행하여지기도 한다. 사령제의 한 사례인 ‘망자혼사굿’으로 불리는 사후결혼제(死後結婚祭)는 미혼으로 죽어 여전히 리미날 상태에 있는 사령을 정상적인 상태, 즉 기혼 상태로 회복시킨 후 조상이란 지위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중장제에서 과도기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대연회²⁾를 통해 사령의 그 동안의 비참한 기간은 끝난다. 이제 사령은 조상의 세계에 도착하여 다시 산자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복원된다. 즉 사령이 조상신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로 보면 대연회는 성스러운 죽음과의 새로운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 죽은 조상들은 이 대연회에 다시 초대되고 이들은 새롭게 죽은 자의 조상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돕는다. 조상신은 좋은 일을 만들기 때문에 산자들이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기원을 한다. 한편 조상신은 자신들에 대한 소홀함에 분노를 느껴 위험한 존재로서 산자에게 불행을 가져다준다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장례식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연회를 통해 조상신의 위협이 진정되어 그들의 위협이 순화될 수 있다는 믿음도 있다.

이중장제적 성격의 장례관습은 인도네시아의 섬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이중장제가 지닌 메타포는 시신의 운명이 인간의 비물질적 요소(영혼)를 위한 모델이 된다는 점이다. 즉 사망한 사람의 유해는 이중장제 처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관리되었다가, 최종적인 죽음의례를 통해 영원한 안식처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잠정적으로 보관되는 기간은 단 며칠이 아니라 최소한 수개월이나 몇 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중장제를 행하는 문화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한 상태에서 영적인 다른 상태로 느리게 전이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이중장제의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 그 다양성을 살펴보면, 어떤 곳에는 시신을 관에 잠정적으

2) 이중장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례의례에 따르는 대연회는 죽음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주 또는 공동체가 다시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되었음을 공표하는 상징적 집회라 여겨진다.

죽음의 인류학적 이해

로 담아 무덤에 묻었다가 개인의 이중장보다는 여러 명의 이중장을 한꺼번에 치를 때 다시 뼈를 대상으로 장례를 치른다. 이 경우는 이중장 기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조문객을 유치한다. 이 때 사령을 다루는 의례전문가는 사령을 죽은 자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 여행길을 장송곡 등을 이용해 보호한다고 인식된다. 여기서 죽은 자의 세계는 매우 안락한 곳이라 개념화되어 있다. 문화마다 죽음과 시신 및 영혼에 대한 다양한 믿음이 발견된다. 예컨대 최근에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 즉 시신이 끔찍하게도 되살아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발견되며, 최근에 죽은 시신의 사악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된다는 믿음, 오래된 죽음의 선량한 영향력에 의해 최근의 사령의 힘이 점차로 대체된다는 믿음, 최근에 죽은 자는 인간 삶의 거처 근처에 머물지만 오래된 죽음은 인간 삶의 터전과 멀리 떨어져 살고 또한 익명성을 띤다는 믿음 등,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믿음이 있다.

죽음과 삶의 밀접한 연결

앞에서 죽음을 전이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죽음은 죽음을 일련의 재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다음 생으로 이끄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인간은 죽자마자 내생의 과정뿐만 아니라 생존한 후손들과도 관련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사회의 죽음의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장례의례, 특히 전이적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들은 성적 욕망(sexuality)과 생산성(fertility)에 관련된 것들이다.

아프리카 해안의 마다가스카르에 거주하는 여러 종족집단들에서는 이미 죽어서 매장된 시신을 발굴하여 재매장하는 죽음의례가 거대하게 치러진다. 이것도 일종의 이중장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별히 재매장을 주로 하는 계절은 다른 사회의 축제의 계절처럼 느껴진다. 이들 재매장 의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삶(life)과 활력(vitality)이다. 여기에 동원되는 상징들의 메시지는 죽음을 초월한 재생(rebirth), 사랑, 성적 욕망 등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의례체

계는 새로운 세대의 출생을 갈구하고 남성의 생식력과 여성의 다산성을 강조하는 기제로 간주된다. 죽음의례 가운데 특히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죽음이 아닌 생산성과 성적 욕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Metcalf & Huntington, 1991).

죽음의례처럼 의례의 과도기적 단계인 리미날 기간 동안에는 흔히 일상생활과는 달리 성적 역할의 전도가 일어나고 일상생활에서 금기되었던 것들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남성의 역할은 과도기적 의례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평소 정조나 정숙함을 강요받았던 여성은 과도기적 의례 내에서 음담패설과 자신의 성욕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Gluckman, 1963). 이러한 상징들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전이적 과정은 일상적인 사회구조의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면서도 범상치 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전이적 단계에서의 비정상적인 또는 ‘반구조적’(anti-structure)인 특성들은 역설적인 힘을 더욱 강화시키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Turner, 1974). 즉 죽음의례 가운데에서 오히려 생명을 강조하고 생명을 만들어 내는 성적 욕망과 다산적인 속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상여놀이의 하나인 진도 ‘다시래기’와 도서지방에서 발견되는 ‘산다위’ 장례관련 놀이의 내용으로부터 장례기간 내에서 재생, 탄생, 성적 욕망, 다산성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진도의 다시래기(정병호, 1986)는 진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서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진도 지역의 장례식에서 출상 전야에 다시래기라는 한판 놀이가 진행되는데 상가의 마당에서 상주를 달래고 망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의미에서의 일종의 연극적 구성을 지닌 놀이다. 대체로 사당놀이, 사자놀이, 상제놀이, 봉사놀이, 상여놀이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거사(居士) 사당놀이’로도 불리는 봉사놀이의 내용은 그 내용과 형식면에 성적 욕망, 출생, 다산성 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봉사역의 거사는 봉사춤을, 봉사 마누라 역의 사당은 곱사춤, 중은 염불소리와 함께 허튼 춤을 추면서 상가에 모인 사람들을 자지러지게 한다. 이들은 입담이 좋아 놀이마당에 있는 상주들과 조문객들

죽음의 인류학적 이해

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잠시 잊게 만든다.

거사 사당놀이의 주요 내용은 거사가 건너 마을에 경문을 하러 간 사이에 사당과 중이 놀아나고 사당이 애기를 낳는다. 거사 몰래 중과의 만남에서 애를 갖게 된 사당이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과 출산에서 봉사인 거사와 중이 벌이는 옥신각신 하면서 내 뺄는 이야기들은 가히 노골적인 성적 담화가 드러난다. 특히 거사를 내보내고 중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당과 사당이 중의 성기를 슬쩍 만지는 장면 등은 성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들이다. 이처럼 진도 다시래기는 성욕, 출산 등이 강조됨으로써 죽음이 새로운 생명 탄생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성욕 등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의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죽음의례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시래기와 같은 극적 상황에서 보이는 노골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와 행동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위 극을 통해 조성된 코뮈니타스(communitas)에서는 반구조적(Turner, 1974)이고 역전의례(ritual of reversal)적인 상황(Gluckman, 1963)이 허용된다. 죽음의례의 전이적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장례놀이에서 강조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 탄생으로써, 죽음은 죽은 자의 문제이기보다는 산 자의 문제이며 죽음은 끝이 아닌 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류학자 전경수(1992)가 보고하는 추자도의 ‘산다위’에서는 진도의 다시래기보다 한층 더 노골적으로 성적 욕망과 다산성이 강조된다. 주검을 매장하는 장지에서 벌어진 추자도의 산다위에서는 장례를 주도했던 여성 상포계원들이 한 남자를 의례적으로 윤간하는 상징적인 성희가 강조되고 있다. 매장 후 마을로의 복귀 직전 벌어진 산다위에서 4-5명의 마을 여성들이 한 남자에게 달려들어 남자의 성기를 비롯해 무차별적으로 남자의 몸을 만지고, 해당 남자는 숨넘어가는 비명을 지르는 놀이가 벌어졌다. 특히 남성의 성기를 만지던 여자가 “이 물건 내꺼야! 라고 고함을 치는 것”(전경수, 1992) 등 여자들의 행동은 실질적인 윤간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다. 이처럼 죽음을 애도하는 곡소리와 윤간당하는 남자의 숨넘어가는 소리에 윤간하는 여자들의 쾌락소리가 나는 장례식장의 현장을 보고한 전경수(1992)는 산다위를 “죽음이란 현상이 생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경

힘하는 과정이고, 상실된 공동체원의 보상을 위해 성적 욕망을 극으로 표현하여 다산성을 강조함으로써 상징적인 생명생산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자도의 산다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며, 여성들이 한 남성의 윤간을 주도하고 있다. 흔히 윤간의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여성에게는 정조 등의 수동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것이 구조(structure)였다면, 추자도의 산다위는 분명 구조를 뒤엎는 ‘반구조적’ 성격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구조적’ 성격의 의례 또는 ‘역전의례’는 구조적 상황에서의 권력관계를 전이적 과정 또는 리미날 기간 동안에만 권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하는 비 일상적 관계를 강조한다. 사실 죽음의례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망자와 상주, 그리고 상주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는 전이적 단계 또는 리미날 기간에 속해 있다. 이러한 죽음의례의 중간적 단계에서 보이는 추자도의 산다위 놀이는 구조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남성 권력이지만, 반구조적 의례에서는 여성성이 강조됨으로써 여성이 지닌 다산성의 부각을 통해 죽음이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역설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전 현상은 장례가 종료된 후 망자와 상주가 사회로 통합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관계인 구조로 복귀됨으로써 원래의 사회구조는 유지된다. 산다위와 다시래기를 비롯해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장례 관련 놀이에 대해 임재해(1995)는 이들 놀이들과 같이 죽음의 현장에서 성을 노래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례의식 가운데 특히 과도기적 단계에서 행해지는 놀이들 가운데서 노출되는 성적 욕망은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 출산과 다산성이 강조되고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장례의식 속에서의 이들 놀이들이 죽음이 발생하는 순간도 아니고 죽은 자가 조상의 세계에 도착한 죽음의례의 마무리 단계도 아닌 전이적 단계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문화적 현상이다.

죽음의 종교적 영역

죽음의 인류학적 이해

죽음과 관련하여 인류학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컸던 주제는 죽음에 대처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의례적 측면들이었다.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차피 죽은 자라기보다는 산 자와 산 자의 세계였다. 죽은 후에도 산 자의 꿈속에 등장하는 죽은 자의 이미지, 죽음으로 인해 상실될 공동체의 결속위기, 죽음으로 인한 산 자의 상실된 정서, 죽음으로 인한 삶의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 죽은 자가 산자의 세계에 관여한다는 인식 등 죽음이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산 자들의 세계에서였다. 따라서 산 자들은 죽음의례를 통해 시신과 영혼의 상태, 생명과 다산성의 상징들을 동원한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 두려움, 상처, 상실 등의 문제를 극적으로 순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례의 근저에는 죽음이 이 세계에서 단순한 생물학적 끝이 아니라 전이적 단계를 통해 다른 세계로 서서히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었다. 인류학자들은 전이적 과정에 등장하는 의례적 관습과 믿음의 문화적 맥락을 규명하고 그 다양성 및 상대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인류학자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의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문화 부문에 비해 종교적 영역의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지만 죽음의례와 관련된 관습과 믿음 역시 사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제나 변화되어 왔다³⁾.

참 고 문 헌

- 김경학 (1995). 힌두의례의 공간의 상징성. *한국문화인류학*, 28, 351-375.
- 송현동 (2004) 한국 장례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문화인류학*, 37 (2), 90-113.
- 임재해 (1990). *전통상례*. 서울: 대원사.

3) 죽음에 대한 믿음과 의례 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장례문화의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들에는 장법의 변화로서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 장례장소의 변화로서 병원 및 전문 장례식장의 이용빈도 급증, 비정상적인 죽음을 정상적인 장례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의 급증 등이 있다 (송현동, 2004).

- 임재해 (1995). 장례 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비교민속학*, 12, 265-317.
- 전경수 (1992). 사자를 위한 의례적 윤간: 추자도의 산다위. *한국문화인류학*, 24, 301-322.
- 정병호 (1986). *진도 다시래기*. 중요무형문화재해설: 연극편. 문화재관리국.
- Douglas, M. (1970). *Purity and Danger*.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 Gluckman, M. (1963). Rituals of Rebellion in South East Africa. In *Order and Rebellion in Tribal Africa* (Collected essays with an autobiographical introduction by M. Gluckman). London: Cohen & West.
- Hertz, R. (1960).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death. In *Death and The Right Hand* (authored by R. Hertz and translated by C. Needham).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Metcalf, P., & Huntington, R. (1991). *Celebrations of Death: The anthropology of mortuary ritu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cliffe-Brown, A. R. (1964). *The Andaman Islanders*.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Turner, V. (1967).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Turner, V. (1974). *The Ritual Proces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 Van Gennep, A. (1960). *The Rites of Passage* (translated by M. Vicedom & S. Kimbal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Anthropology

Kyung-hak Kim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500-757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some explanations on the death rituals or funerals from the anthropological perspective. Some anthropologists like Hertz, van Gennep, and Turner are likely to understand death as the transitional processes from the living world to the world of the dead. In particular, Hertz has emphasized that dying is a slow process of transition from one spiritual state to another. This study also argues that the themes of rebirth, love, sexuality, and fertility as symbols transcending death have been explored by many anthropologists. The combination of themes of death and sexuality or fertility is considered to confront death with emphasis on life. In the Korean society, the themes of both sexuality and death could be found in the liminal period of death rituals around some southern part of islands.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importance of symbolism highlighted in the liminal period of funeral rituals. For instance, the liminality of death rituals is highly likely to link the symbolisms of transition, reversal, ambiguous conditions, seclusion, sexuality, and some others.

(논문접수일: 2008년 10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8년 11월 11일)

(논문게재승인일: 2008년 11월 21일)